

한국 고령자개호 특성에 관한 고찰 —복지시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로모 국제대학(羽衣国際大学) 시부야 테루미(渋谷光美) 번역: 이육

1.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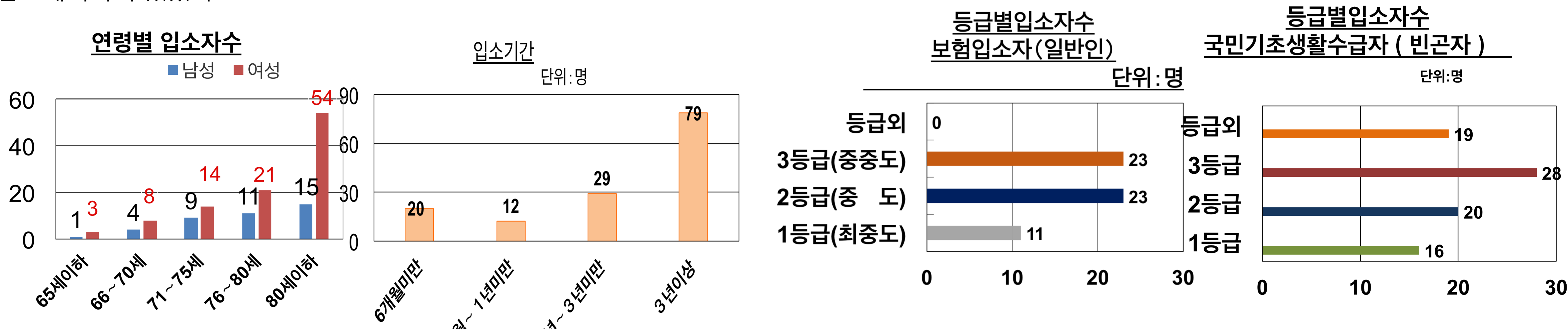
2007년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창설의 배경에는 ①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②고령자 건강상태의 악화와 요개호고령자의 급증 ③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등으로 인한 가족보호력의 저하 ④노인의료비의 팽창 ⑤가족의 변화 ⑥사회적 개호서비스의 미정비가 있다.(林하야시 2010: 5) 그리고 제도시행 후 과제로는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의 미정비로 인한 문제점과 신설된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낮은 대우, 질 저하 등이 지적되었다. 고령자시설의 실태에서는 제도의 과제개선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일면을 파악하고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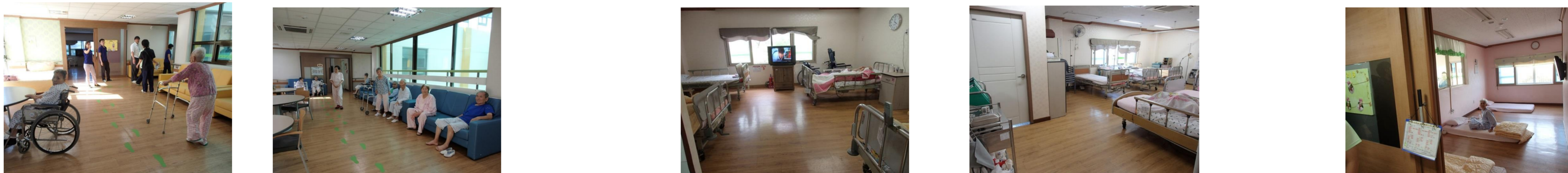
본 발표는 한국의 고령자케어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 연구 제1편이다. 고령자시설의 실태, 과제개선에 대한 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의 고령자시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방문일은 2013년 9월2일이며, 윤리적 배려로서 알게 된 정보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학술적 방법으로 발표하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이 연구는 2013년~2017년도 과학연구비조성사업연구「EPA와 관련한 아시아 개호인력양성의 동향」(과제번호: 25510021)성과의 일부이다.

3. 시설의 개요와 실태

이 시설은 1998년 설치되어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정되어진 노인요양시설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여가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시설이며 입소정원은 140명(남성40명, 여성100명)이다. 방문시점에는 5명의 입소대기자가 있었다.



서비스이용료의 이용자부담은 시설개호20%(재택개호 15%)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10월실시) 수급권자는 전액감면되어지고 있다. 식비 등은 자기부담. 확트인 플로어는 주변을 거닐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본 다인실 구성으로, 호텔코스트 부담은 없다. 온돌방식으로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도 있다.



2개 방 어디서든 갈 수 있도록 세면대를 배치하고 있다. 입욕은 샤워형태로 욕조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배리어프리의 욕상에는 김장독이 놓여져 있다.



입소자 2.5명당 한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78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직원 업무내용의 파악, 케어실습 결과 입력등에 IT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일상생활지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축탁의에 의한 전문간호 서비스, 연계병원과의 협력에 의한 원격진료, 물리치료사에 의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매월 1회 실시 : 생일파티 · 노래교실
매주 1회 실시 : 체조교실 · 찬양예배 · 요리교실 · 회상요법 · 놀이치료 · 서도교실 · 미술활동 · 성경공부
기간별 실시 : 시장 나들이

4. 고찰

이 시설은 IT소프트웨어도입에 따른 개별케어업무의 관리·운영상의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현단계에서는 입소자의 개별원조계획에 대한 실시결과·모니터링·재평가 및 사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효율화 우선으로 업무가 좀 더 세분화 되고 설정되어진 대인원조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 대여복(환자복)을 입고 있는 입소자가 많고, 개인물품의 반입이 거의 없는 점, 병원에 가까운 환경과 서비스로 구성된 측면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활용한 고령자 지원, 개호의 특성은 별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활동적 케어, 정서적 케어로서 종교활동을 시작으로 생활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 지역의 어린이집 아이들과의 교류와 지역주민에 의한 자원봉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배리어프리 욕상에는 휠체어를 이용한 산책이 가능했다. 김치담그기에도 입소자가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시설 내 공용 공간과 개인공간과 함께 공간적 여유가 있어 환경적으로 궁리한다면, 입소자의 생활방법과 선택지를 늘리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또한, 입소자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는 국가기준(3대1)보다 많은 인원배치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운영법인은 입소시설 이외에도 재택시설서비스에서 가족개호지원사업과 지역서비스사업으로 여가시설, 장애인시설도 병설하고, 병원과의 연계에 의한 원격진료도 실시하고 있었다. 법인전체 직원연수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서비스계획서가 참고자료가 될 뿐, 실제 이용하는 사업소가 서비스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각 서비스 제공시 개별원조계획책정등 케어매니지먼트의 전개, 실시역량의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교육·현장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케어의 질향상을 위해 직원이 주체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 시설은 3년제 대학졸업자 이상 자격증 보유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며, 그 이외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유자격자로(1급·2급 구분은 폐지) 고용되고 있고, 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간호조무사 이하로 대우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소에 따라 낮은 개호보수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는 비정규고용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각 사업소·시설에서 어떤 개선노력이 이루어져,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현장직원에게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파악·검토해 나가는 것이 이후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기후·풍토·문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고령자개호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나가고 싶다.

【문헌】 西下彰俊(にししたあきとし)(2011)「韓國の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におけ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課題--在宅ケアを中心に」、東京經濟大学現代法学会『現代法學』vol.20、pp.175-195.

林春植(はやしはるお)他(2010)『韓國介護保險制度の創設と展開——介護保障の國際的視點』、ミネルヴァ書房.

Hyeon-kyu Seon宣賢奎,(2010)「日本・ドイツ・韓國の介護保險制度の比較考察」、『共榮大學研究論集』vol.8、pp.1-18.

Kim Sung won 金成垣他(2009)「韓國の社會と社會保障制度」、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海外社會保障研究』vol.167、pp.4-17.